

# 근대의 ‘마녀 사냥’은 어떻게 여성 해방을 가로막았나



김 은 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마녀’라고 하면 흔히 서양의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기에 일어난 ‘마녀 사냥’을 떠올리기 쉽다. 마녀 사냥은 15-18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악마와 내통해 자연재해와 전염병 심지어 개인적 불운을 불러왔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진 사건을 일컫는다. 그러나 한국사를 살펴보면 사회의 전환기마다 여성을 마녀로 ‘호명(呼名)’해 젠더화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집합감정의 정치가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화형 같은 스펙터클한 신체형이 행해지지 않았지만, 마녀로 몰린 이들이 남편이 없는 독신자거나 성 규범에서 벗어난 일에 종사한 여성이고, 이들에게 사회 불안의 책임이 전가되었다는 점에서 마녀 사냥을 서구의 특정 시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사중심주의, 엘리트 남성 위주의 학문하기 전통 속에서 마녀들의 젠더사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 풍기문란의 젠더 정치

박경리의 『표류도(漂流島)』(1959)는 1950년대 마녀사냥에 대한 여성 작가의 생생한 증언 서사다. 표층 서사만 보자면 이 작품은 ‘전쟁미망인’으로 다방을 경영하는 강현회와 유부남 저널리스트의 사랑 이야기다. 그러나 연애소설의 의장을 빌어 전후 한국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해부를 시도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물론 연애서사로서도 이 소설은 충분히 참신하고 그만큼 흥미롭다. ‘로맨스’를 여성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 해방, 구원으로 ‘괴잉의 미화’함으로써 여성문제를 비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현회는 자신의 정념이 향하는 이상현과 이별하고, 여성의 자유를 존중해 줄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고립과 죽음을 향해 표류하는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 불륜의 사랑으로 자신이 져야 할 낙인을 피해가는 한편, 근대적 사랑의 각본으로서 ‘낭만적 사랑’이 여성의 종속을 유도할 것을 우려한



김 교수는 “대중서사는 악녀를 처벌하기보다 악녀에 대한 공감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성을 들추어내고 있다”고 강조한다.

(사진=pixabay)

것이다. 사랑보다 자존을 지키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중요했다.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박경리는 전쟁미망인인 주인공을 중심에 두고 사회 재건의 미명을 내건 풍기문란의 젠더 정치를 재구성한다.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을 마녀로 내모는 젠더 호명(呼名)으로서 ‘아프레 걸(après-girl(전후과 여성))’이 빈번히 거론되었다. ‘아프레 걸’은 사전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후 사회의 혼란, 빈곤, 불안, 공포, 반항, 폭력, 파괴, 무정견을 거쳐서 구질서에 반항하고 방황하는 한 세대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불어 ‘아프레게르(après-guerre)’에서 온 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의 퇴폐적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정조관념이 없고 물질주의적인 여성을 가리켰다. ‘아프레 걸’은 마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요술 보자기처럼 지시 대상이 넓었지만, 그 핵심에 위치한 것은 “양공주”와 “전쟁미망인”으로, 이들은 전통사회를 위협하는 일탈적 섹슈얼리티로 재현되었다.

전후의 마녀 담론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풍속정화였을까? 전쟁미망인은 관능적인 유혹 주체라기보다 생계불안에 시달리며 노

동하는 신체에 가까웠다. 유혹자로서의 전쟁미망인은 남성의 성애적 욕망이 투사된 환상이다. 강현회가 최강사에게 우발적으로 청동 꽃병을 던져 살인자, 즉 진짜 마녀가 된 것도 그가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모욕했기 때문이다. 강현회가 구속된 후 감옥에서 만난 여성 범죄자들과 그녀들의 저마다 지닌 사연들은 마녀가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였음을 보여준다. 마녀 담론은 해방과 전쟁으로 무너진 부계 질서를 다시 세우고 여성들을 순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인 여성 강현회가 다방 마담으로 나선 것은 대학생 시절 동거하던 찬수와 딸을 낳지만, 찬수는 죽고 그녀는 더러운 소문 속의 여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교사직에서 번번이 해고됐고, 번역 일을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양말장수를 하다가 다방마담으로 나섰다. 돌이켜보면 그녀의 생애는 식민지 근대로부터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여성사를 압축하고 있다. 그녀는 소녀기에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신여성’의 출현을 목도하고, 일제가 패망하자 ‘노라’의 자유를 꿈꾼 해방세대 여성이다. 그녀가 대학시절에 생활비를 아끼 수 있다는 간명한 이유로 동거

를 결정한 것은 해방의 열기도 한몫했다. 그러나 과거 그녀에게 자유의 표현이었던 사랑과 섹슈얼리티는 현재 종속과 명예의 근거인 것이다.

## 남성성 회복을 위한 여성 억압

전후 잡지를 일독해 보면 남자들이 전장에 나간 후 가정과 사회에서 주인 자리를 차지한 여성에 의해 기를 펼 수 없다는 탄식이 압도한다. 남자들이 부재하자 여자들은 남성들의 공간에 진입하며 숨겨진 역량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남성성 회복을 향한 민중 남성들의 요구는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군사적 보호에 기대어 근대화를 해나가는 한편, 민족적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던 국가의 요구와 맞아 떨어졌다. 국가는 일본 제국이 만든 식민지 형법을 차용하는 수모를 무릅쓰면서까지 ‘혼인빙자간음죄’를 제정하고 법의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여성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여자들을 ‘비국민’화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기지촌의 양공주가 된 누이-여성들의 성매매 경제 혹은 성매매 외교에 기대어 살아왔다는 부끄러운 자각으로부터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는 무의식적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제국주의 과시즘이 종식된 2차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방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은 고조되고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지만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부상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시민이 아니라 민법에 의해 다스릴 수 있는 가족적 존재로 규정되는가 하면 냉전체제가 고착화되어 군사주의 문화가 부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성이 이렇다 할 권리를 갖지 못한 현실에서 여성들은 마녀로 낙인찍히기 쉬운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자신의 성공과 인정 욕망을 감추기 위해 다소 과장스럽게 ‘여성성’이라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악녀의 이야기는 변화하고 있다. 대중서사는 악녀를 처벌하기보다 악녀에 대한 공감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성을 들추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가면의 여성성’이라는 여성의 유구한 생존 전략을 버리고 분노와 폭력마저 감추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마녀들이 등장하고도 있다. 마녀들의 이야기에 역사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마녀들이 등장할지 매우 궁금하기만 하다.